

자료제공: 2023. 7. 21.(금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

아동담당관

김현미

2133-5162

사진없음 사진있음

쪽수 : 5쪽

아동정책팀장

전규영

2133-5163

서울시, '아동급식카드' 사용범위 넓힌다...편의점에서 간식도 구매 가능

- 24일부터 CU편의점에서 도시락 등 식사 구매시 간식류 3천 원까지 추가 구매 가능
- 아동급식카드 이용하는 아동들의 선택권 확대하고 낙인감 해소도 기대
- GS25에 이어 CU편의점에서도 앱(포켓CU) 활용한 온라인 결제 도입...20% 할인

- 서울시가 '아동급식카드(꿈나무카드)'를 이용하는 결식우려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.
 - 서울시 결식우려아동은 총 3만여 명으로, 서울시는 아동급식카드, 지역아동센터,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.
 - 서울시는 2019년 아동급식카드 결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이후, 2021년 가맹점을 서울 시내 전체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하고 2022년 전국 최초로 편의점에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아동들의 선택권 확대와 낙인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.
- 24일(월)부터 CU편의점에서 '아동급식카드'로 도시락이나 간편식 같은 식사류를 구입할 때 추가로 과자,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류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. 기존에는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식사류 등으로 구매가 제한돼 있어서 간식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정해진 품목만 골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

- 서울시는 “편의점에서 간식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”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, CU편의점과 협력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했다. 다만, 아동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영양 균형을 위해 아동급식카드로 식사류(도시락, 김밥, 면류 등)을 4천 원 이상 구입할 때에만 간식류(과자류, 아이스크림 등)를 3천 원까지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.
 - 주류, 담배 등 아동·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과 고카페인 음료 등은 구매할 수 없다.

- 또한, 매장에서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없고 이용도 간편한 ‘편의점 온라인 결제’도 확대한다. 기존에는 GS25 편의점 앱(우리동네GS)에서만 온라인 결제가 가능했는데, 오는 27일(목)부터는 CU편의점 앱(포켓CU)에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.

- 편의점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용방법은 간단하다. [포켓CU] 앱에서 [아동급식] 아이콘을 클릭하여 아동급식카드 번호를 등록한 뒤, 예약 구매 메뉴에서 상품을 미리 결제한다. 이후 지정한 날짜에 점포에서 QR코드 제시 후 찾아가는 방식으로, 20% 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.

- 아울러, 오는 9월에는 아동급식카드 디자인도 개편한다. 시중 체크카드 중 아동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카드로 변경하고 종류도 다양화해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.

-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“이번 개선사업으로 결식아동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, 낙인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며, “앞으로도 결식아동들의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말했다.



<서울시 로고>



<CU편의점 로고>



